

투데이 칼럼

연평도의 북한 쓰레기

연평도는 12년 전 북한군 포탄이 떨어졌던 곳이다. 지금도 그때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런가 하면 연평도 해안가에 북한 쓰레기가 흘러들어오고 있다. 북한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도에서는 다양한 북한 쓰레기를 볼 수 있다. 쓰레기를 통해 북방한계선 너머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렵거나 추축해볼 수 있다. 연평도 해안가에 떨어오는 북한 쓰레기들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연평도는 인천항에서 서북쪽으로 120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황금어장으로 불리던 섬이다. 바다 위에 북방한계선은 보이지 않지만, 남북 분단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마을 곳곳에는 12년 전 연평도 포격전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곳 주민들은 지금 상황도 전시 상황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연평도에서 나온 주민들은 두 차례 연평해전을 목격했다. 그러나 민가를 향한 북한군의 도발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연평도는 북한의 해안포 기지에서 불과 13km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요즘 남북관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또 다시 북한의 포격



정복규  
논설위원

이 있는지 불안하다. 이곳에는 실랑민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망향대가 있다. 그 뒤로 황해남도 해주 지역이 보인다.

이곳에 있으면 연평도가 정말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요즘 연평도 해안가에는 각종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다. 바닷가와 해류를 타고 온 북한 쓰레기들이 많다.

북한 쓰레기 안에 표기돼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읽어내면서 북한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쓰레기 중에는 북한 식료품 포장지가 제일 많다. 식료품 공장도 여러 곳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건강을 강조한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성 위염, 삼이지장 궤양, 민성 간염, 민성 신우염의 치료 및 예방에 특효가 있다는 약 선전도

있다. 유독 북한이 상품에 과장 광고를 하는 것 같다.

치은염에 굉장히 좋다는 것도 있다. 알갱이가 들어 있는 꿀 단물도 있다. 이는 양성분이 풍부하고 향기롭고 맛 좋은 천연 음료다. 노화를 방지하고 피로 회복과 어린이들의 성장에 좋다고 쓰여 있다.

2015년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던 공장에서 생산된 과자 포장지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라면 같은 즉석 국수 포장지도 발견된다.

북한 라면의 재미있는 특징은 (일별별한 맛) 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일일한 맛이라는 뜻이다. 해안가에서 주문 북한 쓰레기들을 통해 차약, 사탕, 과자 등 북한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쓰레기들은 북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코로나 19와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북한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 연평도로 흘러든 북한 쓰레기를 보면 북한이 자력경쟁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자력경쟁을 강조하는 북한이다 보니 원료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쓰레기를 모아서 재자원화 한다는 것을 계속 선전한다.

북한은 현재 대북 제재나 코로나19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관련 유튜브 채널은 다양한 상품 광고를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서 여성 출연자는 식료품 매장에 둘러 앉아서 제품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제품들이 잔렬대를 채우고 있다.

북한도 한국처럼 공산품을 관리하는 국가 규정 마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화려한 포장지도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귀여운 캐릭터를 넣고 다양한 글씨체를 제품 포장지에 사용하기도 한다. 여전히 남북 관계는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 쓰레기는 자유롭게 넘어오고 있다. 북한 주민 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마저 귀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기고문

많은 꽃들이 내 눈을 적시는 5월이 왔다.

5월은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과 더불어 각종 야외행사가 많은 달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방역의 회복세가 선명해지는 만큼 어린이날 야외로 쏟아져 나온 가족 단위 관광객을 비롯해 어버이날까지 맞물리면서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북도는 3년간(2019~2021년) 12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로 총 4,005건(사망 13, 부상 3,99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시기별 발생 추이를 보면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446건(11.1%)으로 가장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어린이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보호자가 없거나, 잠시 한눈과는 사이에 발생하게 된다.

아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발 빠른 대처만이 절대적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

지체없이 119로 신고하고, 평소 애용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겠다. 이러한

우리 아이가 위험해? 그렇다면 위험예지훈련을

응급처치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임리치법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아이들은 평소 입에 완가를 물고 있기를 좋아하고 입안에 음식을 씹으면서 돌아다니곤 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버리면 호흡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때는 아이가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목을 감싸며 괴로움을 호소하면 기침을 유도하거나 환자 뒤로 가 양팔로 감싸듯이 앉는다. 안은 요령은 한 손은 주먹을 명치 가슴뼈 중앙에서 배꼽과의 중앙지점에 대고 다른 한 손은 주먹 권손을 이마에서 위로 복부를 밀쳐 올리면 된다. 한 번에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 십번을 반복해보라.

둘째, 심폐소생술이다.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 얼굴이 창백 빛으로 변한다면 심정지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심정지 상태에서 4분을 경과 하면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므로 부모는 평소 심폐소생술 익힘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



김삼진  
전주완산소방서  
평화119안전센터

나치지 않는다. 즉시 아이의 가슴뼈 중앙 살짝 아래 지점을 손바닥을 두고 1초에 2번 정도의 속도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압박한다. 이때 가슴의 깊이는 5cm 깊이로 하고(영아는 검지와 중지 사용례 1~2cm 깊이) 아이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압박을 반복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경우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을 천천히 먹고, 크기가 큰 음식은 작게 잘라 먹는 것이 좋다.

셋째, 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

이기 위해 부모가 3교(서교, 보고, 걷고)를 일러주자.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 시간대보다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저학년일수록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의 63%가 아이가 길을 건널 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학년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횡단보도를 뛰어넘는 경향을 보였고 뛰는 이유를 물어보니 '늦게 건너면 빨간불로 바뀔 것 같아서', '위험지역이라서' 등을 꼽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운전자들은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등교하는 아이에게 멀리서부터 보행신호(파란불)가 비칠경우 경우 절대 뛰지 말고 3교(서교, 보고, 걷고)를 교육해줄 것을 당부한다.

혹시 가정의 위험을 미리 상상해 보는 습관을 갖고 있는가? 소방관은 '위험예지'라는 토론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직후라도 침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매번 한다.

사설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백내장 수술에 대한 과잉 진료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시력 교정을 받기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권했다.

앞으로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료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올 4월부터 보험사들은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 백내장 수술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 수술 보험금을 지급한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의 무작위로 제출해야 한다.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백내장 수술 보험료 지급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일명 '생내장 수술'이 많아지면서 손보사 손해를 상송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손보험 등 민간 보험이 필요 이상으로 유발한 '초과 수술'은 2020년 기준 9만3308건에 달한다.

2022년 1월과 2월 중에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료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자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늘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실손보험 상품의 세부 약관을 개정하면서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치를 필수로 제출받고 있다. 현대해상도 지난해 세극등현미경 검사 영상자료를 첨부하도록 추가 구비 서류를 늘렸다.

사본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기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병원을 신고 조치하게 된다. DB손해보험은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에 더해 수술 전후 시력검사 기록 등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심사 강화 결정은 건강보험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를 억제하는 일이다. 손보사의 손해율과 수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보험금 누수가 가장 심했다. 도수치료, 주사제 등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다른 비급여 항목도 변화가 기대된다. 의료계의 과잉 진료 개선이 여전히 시급하다.

자전거 도시 전주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으뜸도시로 지난 2009년 인정을 받았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에 시상한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데 이어 3년 만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시는 자전거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기린대로 등 2개 노선에 자전거 전용도로 11.3km를 확충했다.

장승배기로 등 10개 노선 10km 구간의 노후 자전거 도로를 포장해 노면을 개선하고 진출입로도 개선했다. 2018년부터는 매년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860여 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보

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국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했다. 앞으로 공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신시스템 개선과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방안이 중요하다.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사업, 하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도 확장해야 한다. 그밖에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교통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자전거는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전주시는 물론 시민들 모두 자전거 도시, 전주를 전주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860여 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보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